

실 일 조	김순봉(김정숙) 강 호(정운숙) 고윤지(이재원) 권남옥(이상천) 김규영(김명자) 김기택(유윤주) 김명준(유지연) 김범석(최윤정) 김복기(정미경) 김삼숙(정순옥) 김석철(이경순) 김재동(이외숙) 김재현(권희화) 문영근(정원영) 박정숙(이은정) 박규범(김경애) 박규선(정명희) 박민우(최윤아) 박성립(최희정) 박재용(강경숙) 박재현(이미경) 박종일(심현숙) 박준성(이선호) 방인대(이정희) 서윤영(전정호) 서장준(이지나) 소병일(안희정) 손중목(계혜정) 송남영(윤영선) 신영진(정신미) 안병권(김승태) 양대수(정숙희) 오문식(조아라) 유정숙(송윤경) 유영수(이영순) 윤여성(이월희) 이대엽(박은영) 이봉중(유현아) 이선균(이효주) 이성근(배미정) 이순우(신현숙) 이종신(김광순) 이현구(박희숙) 인두일(박옥자) 장권섭(이금순) 장희남(김연숙) 정경문(김미정) 정민권(박수연) 정수영(김광순) 정용목(신명자) 조남조(이현자) 조성준(최미경) 조용욱(신영자) 주재훈(황미순) 주창성(신미경) 최석천(김경순) 최우선(송채윤) 최은희(박홍덕) 한병철(박희순) 홍문희(고계선) 홍성운(고계선) 홍종호(손정연) 황승호(김민숙) 강명옥 강영자 공병숙 김교선 김급안 김민정 김선우 김영애 김영희 김예겸 김예주 김예진 김용복 김희희 김주영 김지현 김찬우 마병국 박경희 박근복 박상익 박선옥 박순민 박수운 박아리엘 박예철 박해자 박향정 백수연 서상희 송공숙 송민영 송원규 신연화 안비화 안재우 양영자 오예자 유윤수 이남래 이선미 이선미 이순례2 이점이 이준수 이준하 이준하 이희숙 정연순 조경옥2 조경옥2 조복실 조순자 조연순 조차순 조형준 지연옥 최연원 최진호 한상란 무명3
--------------	---

감 사	강 권(김영숙) 강 호(정운숙) 고관우(나여남) 고윤지(이재원) 김민하(박원미) 김명준(유지연) 김복기(정미경) 김석철(이경순) 김세권(박미경) 김재영(이연주) 남승식(박명분) 마외출(김숙자) 문진호(신연화) 문영근(정원영) 민정식(김진수) 박기범(이정희) 박기봉(최명희) 박민우(최윤아) 박재현(이미경) 박정수(손봉자) 방인대(이정희) 서애정(김기수) 소병일(안희정) 손중목(계혜정) 송남영(윤영선) 심정택(김영실) 양대수(정숙희) 연정옥(이복단) 유병득(하명숙) 윤이중(이재순) 이기주(심미향) 이순우(신현숙) 이영진(박용애) 장권섭(이금순) 장상기(김서진) 장홍열(방승숙) 장희남(김연숙) 조남조(이현자) 조용욱(신영자) 주창성(신미경) 최우선(송채윤) 한동섭(곽경옥) 홍강표(이갑자) 홍성운(고계선) 권민서 김무연 김사랑 김영선 김영애 김희희 김예진2 김경자1 김창수 김하연 김하은 김행자 남미숙 마병국 문형주 박기은 박기화 박매자 박미자 박상자 박세영A 박연희 박주현 박지혜 박해자 박향정 박혜숙 백승현 서상희 송원규 신근선 신민정 안도완 연성욱 오형환 윤정숙 이규호 이능식 이백호 이상욱 이선희 이시은 이아림 이영순2 이윤종 이인식 이재민 이재영 이준수 이향민 이희숙 임미연 정명희 정연순 조경옥1 조경옥2 조차순 주연미 지화진 진선정 진효순 최봉근 최필순 하영래 하영희 한 진 흥나연 홍문희 22구여 무명34
------------	--

선 교	김순봉(김정숙) 김복기(정미경) 김재동(이외숙) 문영근(정원영) 박종일(심현숙) 방인대(이정희) 서상윤(이상희)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이월희(이동숙) 이순우(신현숙) 이점이(박성희) 이현구(박희숙) 장권섭(이금순) 장희남(김연숙) 조성준(최미경) 주재훈(황미순) 홍종호(손정연) 마병국 박경희2 박해자 서경순 서상희 송원규 양정자 이영순 이창규 이희숙 조경옥1 조복실 무명1
------------	---

장 학	강 호(정운숙)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조성준(최미경)
------------	-------------------------------------

구 제	강 호(정운숙) 김재동(이외숙) 박종일(심현숙) 손중목(계혜정) 양대수(정숙희) 장권섭(이금순) 조성준(최미경) 안능수 조경옥2 조복실
------------	--

건 축	김바울(임미정) 박종일(심현숙) 박향정 서상희
------------	---------------------------

구역예배현황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1	김현순1	17	신연자	33	서향순	49	이혜자1	65	김진경	81	정해순			
2	이만희	18	이임자	34	김혜정	50	이태숙	66	이은영1	82	마경희1			
3	박연숙	19	최외숙	35	이영순1	51	강경숙2	67	최유정	83	박미경2			
4	박원미	20	황미순	36	김승례	52	정미경	68	이점이	84	주정숙2			
5	이재순1	방	21	신현숙	방	37	김은경1	방	69	김옥진	방	85	김선화	방
6	정영희	22	이순례1	38	이복단	53	이영숙1	54	임혜숙	70	임혜숙	86	조향순	
7	계혜정	23	서윤영	39	이선호	55	권희화	71	최봉덕	87	이현자			
8	최미경	24	천명애	40	김은배	56	박동숙	72	양정자	88	김경애			
9	안비화	25	김명숙1	41	곽경옥	57	김명원	73	윤현구	89	백영득			
10	고종신	26	김정순1	42	강경숙1	58	김완숙	74	이영순2	90	조연숙			
11	이양자	27	조복실	43	박희순	59	김경복	75	이문순	91	김명준			
12	장보균	학	28	김옥아	학	44	유윤수	학	76	김명자2	학	92	윤명준	학
13	윤정희1	29	이남래	45	장정숙	61	이계옥	77	김영숙1	93	홍성우			
14	김용복	30	홍숙애	46	최명희	62	김명자1	78	윤영선	94	최정길			
15	백인주	31	채은기	47	박용애	63	이연주	79	홍현숙					
16	김희경	32	목영란	48	김동선	64	김미영	80	김연숙					

지난 주일 통계(현장 출석)

장 년 : 887명	청 년 : 81명	교회학교 : 241명	헌 금 : 46,767,203
------------	-----------	-------------	------------------

선 파	송 · 박남호· 최해정 (인도네시아 / 5남전도회, 다비다)
협 력	· 이시몬 (튀르키예 / 3남전도회) · 강남취 (인도 / 6남전도회) · 류옥순 (W국 / 마리아) · 심바울 (베트남 / 뚝) · 박희원 (캐나다 / 4남전도회) · 이용근 (나미비아 / 2남전도회) · 이규준 (캐나다 / 마르다) · 이정오 (A국 / 사라) · 박성진 (태국 / 로이스) · 박윤수 (태국 / 8남전도회) · 임전호 (A국 / 리브가) · 성사준 (A국 / 1남전도회)
사 일	반 기
형 제	· 한승원· 강우나 (말레이시아) · 한빛 (용인 김병대 목사 / 리브가) · 말씀의 샘 (안성 남이환 목사 / 마르다) · 그말씀의 (수원 정일국 목사 / 로이스)
교 인	· 새로남 (안양 박성우 목사 / 리브가) · 주안의 (광주 조용흠 목사 / 한나) · 청리예향 (인천 김상민 목사 / 사라)
회	· 안양생병원 (안양 김정은 목사 / 에스더)
강 원	· 산계 (강릉 나중수 목사 / 9남전도회) · 하나인 (홍성 국균호 목사 / 1남전도회)
총 청	· 동점 (괴산 권혁인 목사 / 2남전도회) · 원동 (옥천 김사무엘 목사 / 다비다)
전 라	· 마치 (완주 이창수 목사 / 한나) · 쌍지 (순천 박광현 목사 / 6남전도회) · 흥농은혜 (영광 최태승 목사 / 한나)
경 상	· 세간 (의령 김진홍 목사) / 4남전도회) · 비진도 (통영 이주태 목사 / 뚝) · 칠성 (청도 박상호 목사 / 마리아) · 당항포 (고성 진철학 목사 / 2권사회) · 일봉 (구미 이계훈 목사 / 마르다) · 사순주님의 (양산 서동혁 목사 / 마리아)
제 주	· 신재주갈릴리 (제주 김덕근 목사 / 뚝) · 오를랜드 조은 (뉴질랜드 나명규 목사 / 1권사회)
해 외	· 몬트리올립턴 (캐나다 강승희 목사 / 3남전도회)
군 군 교 회	· 헬렌 오지 (미국 / 3남전도회) · 김홍희 (미국 / 7남전도회) · 기도원 장지 (미국 / 3남전도회) · 벨레안 (미국 / 4남전도회) · 노도 김자수 (미국 / 3남전도회) · 알부연 (미국 / 2남전도회) · 예쁜이 (미국 / 2남전도회)
선 선 (군 목)	· 교남소망의 (9남전도회) · 성남보육원 (4남전도회) · 국제기아대학기구 (7남전도회) · 밀양선교회 (6남전도회) · 결연경로당 · 한국기드연합회 · 더불어숲지압재활센터
시 울	· 물대동산 (영등포 방길사한 목사 / 2권사회) · 진리와자유 (서울 양현 김만성 목사 / 사라)
기 관	· 교남소망의 (9남전도회) · 성남보육원 (4남전도회) · 국제기아대학기구 (7남전도회) · 밀양선교회 (6남전도회) · 결연경로당 · 한국기드연합회 · 더불어숲지압재활센터
신 학교	· 인도네시아 STTP 신학교
교 도 소	· 남부교도소 (현양사역)

목 사	김수환 ukc97@hanmail.net 김용국 kyk8214@naver.com 오문식 oanstlr@nate.com 김바울 kbu1826@gmail.com 백요한 johnbaek28@gmail.com
전 도 사	서은희 ksjsys@naver.com 김혜숙 gongone21@daum.net 최선미 sunmi9013@hanmail.net
교 육 목 사	김정훈 sfc-ants@hanmail.net
교 육 전 도 사	박정숙 yearam1216@hanmail.net 김찬양 kimchanyang94@gmail.com 김도현 ehgsaortm@naver.com 이희선 ced3575@naver.com 박솔민 solveen@naver.com 김지희 podonanu1981@naver.com 김주롱 jurongkim@naver.com
협 동 목 사	이향민 jsotlee92@naver.com
장 로	[사무] 이규석 이희행 임경구 박희순 손중목 김세권 박기봉 허상환 김근석 김종명 김재동 김진배 김영호1 반기섭 [원로] 마외출 엄규환 전용부 서상윤 방인대 강 호 [은퇴] 김석중 문 흥 유인만 서정대 정희남 서문용 박재인 연정옥 조용욱 조성준 이기춘 박정수 김삼숙 박규범 이영진 이희홍 황상호 강 권 김봉기
지 휘	김종명 김영호 이애자 김선화 박영진 김종인 김찬양
반 주	김영길 이병석 이현구 정하경 김윤정 김태희 김세미 황은정 허은민 문혜민 이은영 김주원 배예민 김사론 김소리 정현지 조은길 유진솔 선 휘

장 년 모 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오전 5:30	주 일 2부 예배: (주) 오전 09:30	주 일 3부 예배: (주) 오전 11:30
주 일 1부 예배: (주) 오전 07:30	주 일 저녁 예배: (주) 저녁 07:00	
주 일 4부(청년) 예배: (주) 오후 01:30	금 요 기 도 회: (금) 저녁 08:45	구 역 장 모 임: (금) 오전 09:40
수 요 저 녀 예 배: (수) 저녁 07:30	날 푸 른 학 교: (화) 오전 10:30	L . T . C : (화) 오전 10:00
람 월 성 경 강 좌: (목) 오전 10:00		

교 회 학 교

영아부: (주) 오전 11:30 영아부실	유아부: (주) 오전 11:30 유아부실	유치부: (주) 오전 11:30 유치부실
유년부: (주) 오전 11:30 유년부실	초등부: (주) 오전 11:30 초등부실	소망부: (주) 오전 09:30 소망부실
중등부: (주) 오전 11:00 중등부실	고등부: (주) 오전 11:00 고등부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고 분리 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1. 한 몸으로 묶여주신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사랑과 교제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에 이는 곧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 서로를 각각의 지체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각 지체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람원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